

일제하 이왕가 박물관(李王家博物館)의 식민지적 성격

睦 秀 炫*

차 례

머리말

- I. 이왕가 박물관의 설립 경위
 - II. 소장품의 수집과정과 성격
 - III. 이왕가 박물관의 운영과 위상
 - IV. '근대적' 박물관이라는 의미와 주체의 문제
 - V. 이왕가 박물관에서 '이왕가 미술관'으로 - 역사의 단절과 식민지적 성격
- 맺음말

머 리 말

박물관은 현대 사회에서 한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의 구심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상을 분류학적으로 인식하며 그것을 전시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박물관' 제도 자체가 근대 사회의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공중에게 개방된 근대적 박물관은 바로 그 '개방'이라는 의미에서 민주사회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그 전시품이 한 문화적 공동체의 특성을 역사적으로 구현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근대 민족국가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서구의 경우 박물관의 근대성은 왕조의 수집품을 공중에 개방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승리를 반영하는 측면과, 그 박물관의 구성 체계가 단순히 진귀한 재보(財寶)와 예술품을 수집·전시하는 차원을 넘어 그 사회 구성체의 문화적 특성을 주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는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¹⁾

* 가톨릭대 강사

1) 영국에서는 한스 슬로언(Sir Hans Sloane)경이 제공한 수집품으로 시민들을 위한 박물관을 세우기로 의회에서 결정함으로써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이 성립되었으며, 프랑스는 대혁명 직후 부르봉왕가의 수집품을 혁명 공화정부가 시민들에게 개방한 것이 루브르 박물관(le Musée Louvre)이다. 서양 박물관의 역사에 관해서는 Alma S. Wittlin, *Museum : In Search of a Usable Future*(MIT

회화, 조각 등을 중심으로 한 고대, 중세의 미술 장르들이 개념에 큰 변화 없이 근대로 이어진 서구와는 달리 동양권에서는 '미술' 개념조차 서구적이며 근대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일찍부터 감상 대상물이었던 회화를 제외하고는, 종교적 의식과 관련이 있거나 생활 공예품이었던 것들을 미술로 인식하기 위해서 동양에서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했다. 그러한 의식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박물관이라는 전시 제도였다.²⁾

그러나 제도적인 측면만으로 박물관이 '근대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박물관의 설립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박물관의 성격은 물론, 박물관을 통해 형성되는 정체성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의 사실성이 전시의 객관성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유물을 통한 이른바 '객관화'를 통해 전시를 좌우한 주체의 시각을 정당화시킨 것은 제국주의 국가나 식민지가 되었던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문제 의식 아래 문화적 유물을 전시라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박물관 제도가 근대화의 징표로서 작용하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피는 일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 대상으로서 이왕가박물관(李王家博物館)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³⁾

이왕가 박물관은 우리 나라 최초의 박물관이면서 조선총독부 박물관과 함께 일제 시기 우리나라 박물관의 양대 축을 이룬 박물관이었다.⁴⁾ 1915년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세워진 조선총독부 박물관과는 달리 이왕가 박물관은 일본에 병합되기 전인 1909년에 세워졌고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왕가의 이름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정황은 이왕가 박물관이 조선이 식민지화되기 이전에 근대적 박물관으로 창설되었을 것이라고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이왕가 박물관을 진정한 의미에서 근대적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왕가 박물관이 한 나라의 문화적 공동체의 특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이왕가 박물관의 설립 경위, 소장품의 수집과정과 성격, 운영체제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 따라 '이왕가 박물관'이라는 명칭의 정당성과 설립 주체의 문제도 다루어 이왕가 박물관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Press, 1970) pp. 81~83 및 pp. 101~105 참조.

2) 北澤憲昭, 『眼の神殿』(東京: 美術出版社, 1989), pp. 124~127.

3) 이왕가 박물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선구적인 박물관학 입문서인 李蘭英의 『博物館學 入門』(삼화출판사, 1972: 1992: 1996) 등에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최근에 발표된 송기형의 「창경궁박물관 또는 '李王家 박물관'의 연대기」, 『역사교육』 제72집(1999.12)는 이왕가 박물관에 관한 최초의 논문이다. 이 글은 『純宗實錄』 『承政院日記』를 비롯한 여러 자료들을 꼼꼼히 추적하여 연대기적 선후관계를 바로잡고 있다.

4) 조선총독부 박물관은 1915년에 일제가 식민지 경영 5주년을 기념하여 그 치적을 조선과 세계에 알릴 목적으로 벌인 이른바 '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 행사의 하나로 설립되었다.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설립배경과 운영에 관해서는 필자의 「일제하 박물관의 형성과 그 의미」(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2) 제 2장에 자세히 언급하였다.

I. 이왕가 박물관의 설립 경위

이왕가 박물관은 조선 왕조의 5대 궁궐의 하나인 창경궁 일곽에 동물원, 식물원과 함께 설립되었으며 명정전(明政殿) 일대를 전시실로 삼아 1909년 11월 1일 일반에 개방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으로서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왕가 박물관의 공식기록인 『이왕가박물관 소장품사진첩(李王家博物館所藏品寫真帖)』에 따르면 순종이 명하여 박물관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다.⁵⁾ 이 때문에 서양에서 왕실 소장의 미술품이 혁명 이후 민주주의 원칙 하에 일반에 공개되었던 전례에서처럼, 순종이 백성들에게 왕실의 귀중품을 공개했으리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그러나 『순종실록(純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의 사료와 『이왕가박물관 소장품사진첩』 등으로 박물관의 설립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정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왕가 박물관이 설립되기애 앞서 박물관에 관한 인식은 미미한 편이었다. 박물관 제도는 개항기에 주로 일본을 통해 소개되었다. 개항에 따라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일명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의 일원으로 1881년에 일본의 제2회 내국권업박람회(內國勸業博覽會)를 둘러본 박정양(朴定陽)은 일본의 내무성(內務省)과 농상공부(農商部)를 둘러본 보고서인 『일본내무성직장사무부농상공부(日本內務省職掌事務附農商務省)』에서 박물관 제도에 관해 언급하였다. 그는 “박물관(博物局)은 박물관 사무를 관리하며 천산(天産), 인조(人造), 고기금물(古器今物)을 수집하여 전문을 넓히므로 박물관이라 한다”고 하여 박물관의 뜻을 정의한 다음, “각국 소산을 진열하지 않는 것이 없어 이로써 인민을 가르치는 자료로 삼는다”고 하여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도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⁶⁾ 박정양과 함께 시찰단원으로 다녀온 민종묵(閔種默)은 개인 견문기라고 할 수 있는 『견문사건(見聞事件)』에서 박물관이 서양법을 따라 세운 것이라고 하고 진열품에 대해서는 각국의 화물(貨物), 기계(器械), 각종 화석(化石), 역대 왕과 왕비의 관복(冠服), 도검(刀劍), 기명(器皿)과 남녀 해골(骸骨), 조(鳥) 수(獸) 충(虫) 어(魚), 중국의 금석비첩(金石碑帖), 서화(書畫) 등 없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이 식견을 넓힌다고 하나 무엇에 도움이 될지는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다.⁷⁾ 곧 그러한 시설의 효용성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때의 견문은 이처럼 개인들의

5) 李王職에서 발간한 『이왕가박물관 소장품사진첩』은 1912년에 상·하로 처음 나왔고, 이어 1922년, 1929년, 1933년에 회화, 도자, 불상 등으로 세분화해서 개정증보판이 나왔다.

6) 朴定陽, 『日本內務省職掌事務附農商務省』(奎 2577). “博物局者 專管博物館事務 蓋蒐集天産人造古器今物以博見聞 故曰博物院 自壬申二月 始設博物院 於東京山下地先 自國內社寺遺傳之物 官庫所藏之品 至於各國所産 無不陳列 以爲人民教術之資”.

7) 閔種默, 『見聞事件』(奎 1311의 2).

소감에 그쳤고 박물관 설립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을 근대적인 교육 기관으로 인식한 예는 1888년에 박영효(朴泳孝)가 올린 글에서 볼 수 있다. 박영효는 1884년의 갑신정변에 실패하여 일본에 망명해 있던 중에, 1888년에 13만여 자에 이르는 개혁 상소를 올렸다. 그는 고종에게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그를 위해 봉건적인 신분제도의 철폐와 근대적인 법치국가의 확립에 의한 조선의 자주독립과 부국강병을 주장하였는데 그 가운데 교육 및 학술문화 정책의 하나로 박물관을 세울 것을 들었다.⁸⁾ 그러나 망명객의 이러한 주장이 진지하게 검토되었던 듯하지는 않다. 고종은 근대적인 설비나 체제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고, 그러한 관심의 일환으로 1893년과 1900년에 시카고와 파리 만국 박람회에 물품을 출품하여 조선을 만방에 알리는 등 노력하였지만, 고종이 강제 양위 당하던 1907년 8월까지 박물관을 세우는 일에 관해서는 논의가 깊이 이루어지지 않았다.⁹⁾

그렇다면 이왕가 박물관이 설립된 기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순종 재위기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는 기본 사료인 『순종실록』에는 이왕가 박물관 설립에 관한 발의나 설립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관련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1911년 2월에 이왕직 사무분장 규정이 공포될 때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박물관에 관한 항목이 보일 따름이다.¹⁰⁾ 『승정원일기』는 1908년부터 그보다 좀더 자세한 기록을 실고 있다. 그에 따르면 1908년 3월 7일 시모고리야마 세이이치(下郡山誠一)를 주임대우로 박물관 조사사무를 맡긴 것이 박물관 사무의 시작이었다. 이어 5월 29일에 스에마쓰 구마히코(末松熊彦)를 주임대우로 박물관·동물원·식물원 서무 및 회계를 맡겼으며 6월 18일 유한용(劉漢用)에게 관임대우로, 7월 15일에 야야베 시게루(野野部茂)에게 박물관 사무를 맡겼다.¹¹⁾ 그러나 여기에서도 직원의 고용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 박물관 설립의 의의나 목적 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왕가 박물관의 설립 의도에 관한 것이 처음으로 언급된 곳은 1912년에 발간된 『이왕가 박물관소장품사진첩』에 당시 이왕직 차관이었던 고미야 사보마쓰(小宮三保松)가 쓴 서문인 것으로 생각된다.¹²⁾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8) 「朴泳孝 建白書」, 『日本外交文書(韓國篇)』 제4책, pp. 216~235. '박영효 건백서'의 내용과 이의 의미에 관한 논의는 姜在彦, 『韓國近代史 研究』(청아, 1982), pp. 117~124 및 박물관 논의에 관해서는 이인범, 『미술관제도 연구』(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연구소, 1998), p. 21 참조.

9)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 참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에 관해서는 김영나,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의 조선관」,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2000년 상반기) 참조.

10) 『순종실록』 부록, 순종 5년(1911) 2월 1일.

11) 『승정원일기』 융희 2년(1908) 3월 7일, 5월 29일, 6월 18일, 7월 15일. 유한용은 1907년 9월 3일에 육군 부령(副領)으로서 무관직을 수행한 사람으로 확인된다. 『승정원일기』 융희 1년(1907) 7월 26일(양력 9월 3일).

12) 1912년본에 당시 이왕직 차관이었던 小宮三保松가 쓴 서문은 뒷날 이왕가 박물관에 관한 언급의 기초적

명치 40년(1907)의 겨울, 한국 황제 즉 현재 이왕전하가 덕수궁에서 창덕궁으로 별거하는 준비를 할 때 창덕궁 수선공사를 하면서 나는 그 공사의 감독을 맡았다. 11월 4일 당시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씨 및 궁내부대신 이윤용(李允用)씨가 “황제께서 무료해하실 것을 달래드릴 오락이 없겠는가”하고 물어서, 동식물원과 박물관 창설을 제의하고 계획의 대략을 설명하니, 크게 기뻐하면서 찬성하여 건물의 설계, 물건의 수집에 착수해서 41년(1908) 9월 관장(管掌)할 부국(部局)이 되는 어원사무국(御苑事務局)도 신설하였다.¹³⁾

이 인용을 통해 보면 창경궁의 박물관은 동물원, 식물원과 함께 순종의 무료함을 달랠 ‘오락’으로 설립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발의자는 바로 고미야 자신이었다.

박물관이 근대 국가 체제 구축의 한 제도로서 설립되었던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인 이왕가 박물관은 이처럼 실세를 잃은 왕의 위안거리라는 명목으로 설립되었다. 순종은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의 여파로 강제 양위당한 고종의 뒤를 이어 황제위(皇帝位)에 등극했으나 일본 통감부의 의도대로 고종과 격리되도록 그해 11월 13일 경운궁에서 창덕궁으로 이어(移御)하게 되었다. 박물관과 동·식물원 개설은 위의 고미야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어를 위한 창덕궁 수선공사 과정에서 매우 즉흥적으로 발의된 것이었다.

II. 소장품의 수집과정과 성격

‘이왕가 박물관’이라는 명칭은 그것이 전래되어 내려온 왕실 소장 골동서화를 대중에게 공개한 것이라는 예측과 막연한 기대를 하게 한다.

이왕가 박물관 소장품이 왕실 수장품(守藏品)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려면 먼저 전통적으로 내려온 보물이나 서화 수장 방식에 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문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왕실의 귀중품 수장고로서 신라시대에 귀비고(貴妃庫), 천존고(天尊庫), 고려시대에 장화전(長和殿) 등이 있었다.¹⁴⁾ 조선시대에는 왕의 의대(衣櫛) 및 궁중의 재화와 금보(金寶)

인 근거가 되었다. 이왕가 박물관이 1938년에 덕수궁으로 이전하여 이왕가 미술관에 통합된 뒤 나온 『이왕가미술관 요람』의 이왕가 미술관 연혁 부분도 거의 고미야의 글에 기초하고 있다.

13) 小宮三保松, 『緒言』, 『李王家博物館所藏品寫真帖』(1912). 그러나 고미야의 회고와는 달리 어원사무국 관제는 1908년 8월 13일에 반포되었다. 『승정원일기』 융희 2년(1908) 8월 13일.

14) 왕실 보물고로 거론된 貴妃庫는 『三國遺事』의 延烏郎 細烏女 이야기에서 일본으로 가 귀비가 된 세오녀가 고운 비단을 짜주어 신라에서 잃어버렸던 햇빛을 보게 되자 그 비단을 국보로서 보관했다는 창고이다. 天尊庫는 신라 제31대 신문왕이 동해의 한 섬에서 얻은 萬波息笛을 보관했다는 月城의 한 창고로서 역시 『삼국유사』에 전한다. 고려 때에는 毅宗 연간에 진기한 완상품과 서화를 수집했다고 하며, 『宣和奉使高麗圖經』에는 왕궁에서 나라의 보물을 저장하였던 전각으로 長和殿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난영, 『박물관학 입문』, pp. 77~81 참조.

등의 물품을 관장하는 관서(官署)로 상의원(尙衣院)이 있었다.¹⁵⁾ 그러나 이는 왕실의 진귀한 물품을 보관하는 일종의 귀중품 보관소 또는 그러한 것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이었기에 일정한 체계를 갖춘 수집과 대중을 상대로 전시를 하는 근대적인 박물관의 모습은 아니었다.

『이왕가박물관소장품사진첩』에 따르면 1912년 12월 현재 소장품이 총 12,230점이 있었으며 수집된 소장품은 구체적으로는 불상, 금공, 석공, 목조, 칠기, 자수 및 직물, 도기, 와, 유리, 회화 등이었다(圖 1).¹⁶⁾ 사진첩에 실린 사진들로 보아 이왕가 박물관은 불상 등 종교 유물이나 토기, 자기 등도 다수 소장하고 있었다(圖 2).

이왕가 박물관은 처음에는 창경궁 내의 명정전, 경춘전, 환경전, 통명전 및 양화당 등 400여평에 이르는 건물 일곱 채를 수리해서 내부 설비를 갖추어 전시실로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1911년 9월(양력으로는 11월 30일)에 창경궁 동북쪽 언덕의 자경전(慈慶殿) 자리에 지하실을 포함하여 연건평 220평의 3층 벽돌 화양(和洋) 질충식 건물을 지어 박물관본관으로 사용하였다(圖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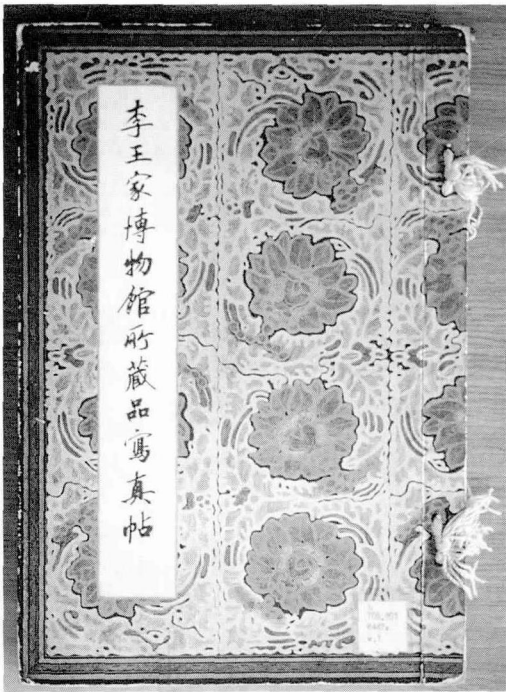


圖 1. 『李王家博物館所藏品寫真帖』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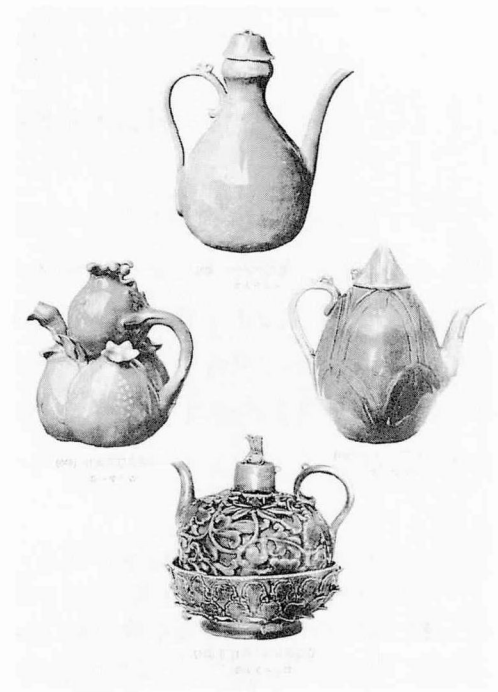


圖 2. 『이왕가박물관소장품사진첩』의 고려청자 사진

15) 『大典會通』 권1,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掌供御衣襪及內府財貨金寶等物”.

16) 小宮三保松, 『緒言』, 『이왕가박물관소장품사진첩』(1912). 1929년의 개정판에서는 소장품 수효가 2만점으로 늘어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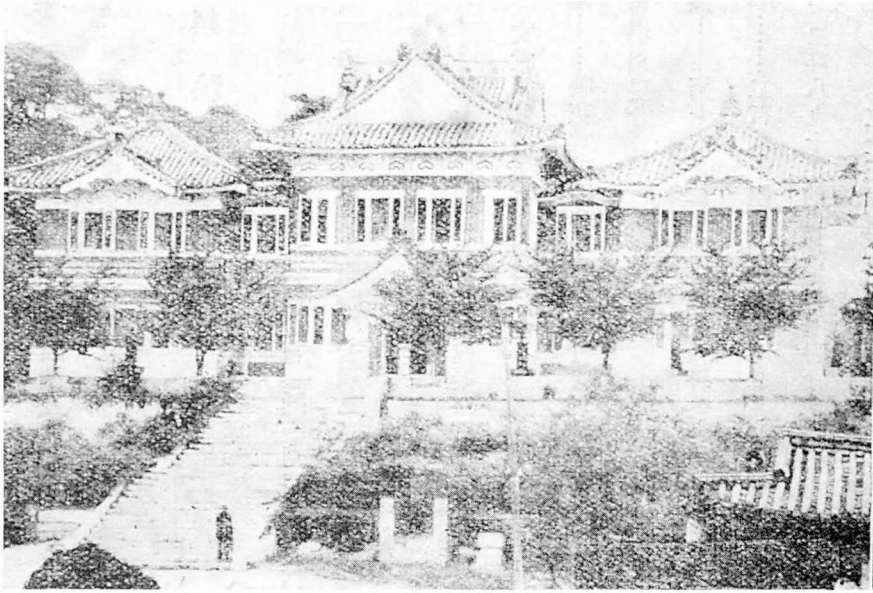


圖 3. 창경궁 자경전 자리에 세워진 화양(和洋) 절충식 박물관관

명정전에는 석각류를, 명정전 행각(行閣)에는 조선시대의 토속품, 삼국과 신라시대의 석검, 석촉, 토기류, 석기시대의 석기류를 진열하였고, 함인정에는 일본과 중국에서 제작된 것들을 참고품 명목으로 전시하고, 환경전에는 조선시대의 금속기 및 토속품류, 경춘전에는 조선시대의 도기, 목죽류, 옥석기류, 통명전에는 회화류, 양화당에는 평안남도 강서군의 고구려 고분 벽화 모사도를 전시하였으며, 박물관에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로 불상, 고려시대의 도기, 금속, 목죽류, 옥석기, 신라시대의 금속, 옥석기류를 진열하였다.¹⁷⁾

이러한 유물이 왕실 전래품이 중심이 되었는지는 대단히 의심스럽다. 단적인 예로 고종이 처음 이왕가 박물관의 소장품을 관람하게 되었을 때 고종은 고려시대의 청자를 보고 “이것은 어느 나라 것이냐”고 물었고, 안내를 하던 당시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조선의 고려시대 것”이라고 답하자 이전에 전혀 본 일이 없는 고종이 “우리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답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¹⁸⁾ 이토는 고려자기의 대수장가로서 ‘고려 청자 최대의 장물아비’

17) 『순종실록』 부록, 순종 5년(1911) 11월 30일 및 「李王家美術館沿革」, 『李王家美術館要覽』(이왕직, 1938), pp. 1~2. 건설비 7,918원을 들여 지은 이 박물관은 1938년 이왕가 박물관이 덕수궁으로 이전하여 이왕가 미술관에 통합됨에 따라, 이왕가 도서관의 장서각 건물로 쓰였다. 1981년에 장서각 소장 왕실 관련 서적이 정신문화연구원으로 이관되고 1985년 창경원이 다시 창경궁으로 복원되면서 이 건물에서 궁중유물 전시관격으로 왕실 관련 유물을 전시하기도 했으나, 왜식(倭式) 때문에 비판을 받아오다 1992년에 철거되었다. 千惠鳳, 「藏書閣의 歷史」, 『藏書閣의 歷史와 資料의 特性』(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p. 31 및 p. 57.

라는 평가까지 받기도 했는데, 이러한 고려자기 수집이 당시에 고려고분에 벌어진 처참한 도굴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¹⁹⁾ 고려 청자가 당시 이왕가 박물관의 가장 중심적인 소장품이었음을 생각할 때, 왕실이 주체적으로 박물관 형성을 주도했다면 수집품의 성격에 관해 그처럼 무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는 이왕가 박물관이 유럽이나 일본의 박물관들처럼 기존 소장품을 바탕으로 근대적인 박물관으로 변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일 것이다.

여러 자료로 종합하여 보면, 이 소장품들은 대체로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수집의 가장 주요한 방법은 구입이었다. 특히 많은 서화와 도자를 시중에서 다수 구입하였다. 당시에는 이미 도굴이 성행하여 경성 시내에서는 도자기를 사고파는 것이 흔한 일이 되어 있었다. 이에 이왕가 박물관에서는 별다른 수집품이 없는 상태에서 흔히 매매되는 고려시대 분묘 출토 도자기, 귀금속, 옥석류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의 조각상을 구입하고, 조선시대 회화와 공예도 수집하였다.

다시 고미야의 글을 인용해 보면 이러하다.

1908년 1월부터 먼저 진열품의 수집에 전력을 경주하였다. 이때 마침 경성에 고려시대의 분묘에서 나온 찬연한 고려문화를 볼 수 있는 다수의 도자기, 금속품, 옥석류가 많이 매매되고 있어서, 그것을 호기(好機)로서 그러한 출토품과 함께 삼국시대, 신라통일시대의 작품(作)과 관련있는 중요한 조상(彫像)의 구입에 노력하고, 혹은 조선시대의 회화, 공예품 등도 수집했다.²⁰⁾

이러한 구입이 이왕가 박물관이 발의로부터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려 12,000점이 넘는 소장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당시 일반 고려자기 값은 대개 5원에서 20원 사이였으나 가장 고가(高價)였던 청자진사포도동자문표형병(靑磁辰砂葡萄童子文瓢形瓶)의 경우 950원이나 주고 구입하였다.²¹⁾

18) 淺川伯教, 「朝鮮の美術工藝に就いて回顧」, 『朝鮮の回顧』(近澤書店, 1945.3) p. 270. 이는 이구열의 『한국문화재 수난사』(돌베개, 1996), p. 71에도 인용 수록되어 있다. 아사카와는 이를 박물관 주임이었던 스에마쓰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하며 인용하였다. 당시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의 그러한 말에 차마 개성의 고려고분에서 도굴한 것이라는 말은 할 수 없어 침묵하였다고 한다.

19) 三宅長策, 「고려고분발굴시대」(『陶磁』第六卷), 이는 황수영 편, 『일제기문화재 피해자료』(한국미술학회, 1973), pp. 133~134에 「67. 그 당시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발췌 수록한 것에서 재인용하였다.

20) 小宮三保松, 앞 글.

21) 이구열은 이를 일본인들이 한국땅에서 도굴한 자기를 다시 왕실에 고가로 팔아넘김으로써 이중의 수지를 맞춘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구열, 『한국문화재 수난사』, p. 70 및 이난영, 『박물관학 입문』, p. 82.

둘째로 적으나마 도요지 등에서 거두어들이던 일종의 발굴품도 있었다. 박물관의 주임이었던 스에마쓰는 1914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전남, 충남, 경북 지방을 다니며 고려 유적을 조사하였으며 5월에는 전남 강진군 대구면의 고려 도요지에서 고려 시대에 폐기된 불완전한 도자기 및 파편 등을 수집해 왔다.²²⁾ 스에마쓰는 이러한 수집을 바탕으로 신문기자들을 초청하여 소개하였으며 강진 청자요지 발굴에 관하여 『매일신보』에 글을 신기도 했다.²³⁾ 스에마쓰는 그밖에도 몇몇 글을 쓴 것으로 확인되지만 지속적으로 학술적인 업적을 쌓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²⁴⁾ 그는 본래 세관 사무관 출신으로서 이왕가 박물관에 처음 부임할 때에도 박물관과 동·식물원의 서무 회계 및 촉탁을 겸임하여 일했던 인물로 전문 학자는 아니었던 듯하다.²⁵⁾

셋째는 왕실에 전해 내려오던 서화, 공예 등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그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의 회고에 따르면 박물관 설립 당시 전래된 고미술품은 전혀 없었으며, 왕실의 가마와 깃발인 연(輦), 여(輿)와 기(旗), 장(杖) 등만이 전래품이었다고 한다.²⁶⁾ 또 명정전 행각 등에 전시되었던 조선시대의 민속품 가운데 행렬 의장 기구 등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전래품이라고 해도 도자나 회화 등의 미술품은 아니었고 주로 '토속품'이라고 불렸던 생활용품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⁷⁾ 또 1985년에 복원하여 개장한 창경궁의 장서각(藏書閣, 구 이왕가 박물관 건물)에는 5대궁에서 수합한 왕실 관련 물품을 보관하거나 전시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서화가 368점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²⁸⁾ 이는 이왕가 박물관을 처음 설립할 당시에는 왕실 소장품들이 제대로 수합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2) 『순종실록』 부록, 1914년 4월 6일, 5월 16일, 6월 27일.

23) 末松는 5월까지의 조사를 바탕으로 1914년 6월 1일 신문기자를 초청하여 발굴에 관한 일종의 보고회를 열었다. 이를 바탕으로 『매일신보』에 "高麗靑磁窯新發見"이라는 제목으로 발굴 모습과 수집품 사진과 함께 6월 3일부터 5회에 걸쳐 연재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스에마쓰의 글로 發見의 順序(6월 3일자), 靑磁窯의 地形과 陶窯의 構造(6월 4일자), 作品의 精粗(6월 5일자), 高麗窯의 前後와 陶工의 關係(6월 6일자)의 차례로 서술되었다.

24) 스에마쓰가 쓴 글은 다음과 같은 것이 목록으로 알려져 있지만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末松熊彦, 「朝鮮美術界の大發見-高麗古陶窯の陶器」, 『莊京都美術』 32(1912): 「高麗靑磁窯の新發見」, 『美術定論』 2-8/ 『朝鮮公論』 2-7, 1914.

25) 『승정원일기』 융희 2년(1908) 5월 29일자.

26) 藤田亮策, 「朝鮮古蹟調査」(『朝鮮學論考』, 1963), p. 69.

27) 文化財管理局, 『昌慶宮』(1989), p. 34. 이왕가 박물관 소장품으로 편입되지 않은 채 있던 왕실 관련 물품은 이왕가 박물관이 1938년에 덕수궁으로 옮겨간 뒤에도 창덕궁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28) 현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유물은 그러한 왕실 물품과 해방 뒤에 5대 궁에서 수합된 서화와 유물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III. 이왕가 박물관의 운영과 위상

이왕가 박물관은 그 소장품 구성에서 봉건왕조의 수장품이 근대화된 박물관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었다. 운영의 면에서는 어떠하였을까? 그에 관해서는 이왕가 박물관의 직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왕가 박물관의 직제는 1909년의 대한제국 『직원록(職員錄)』에서부터 나타난다. 당시 궁내부(宮內府)에는 어원사무국(御苑事務局)이 신설되어 있었고 박물관 사무 책임자는 박물관 부의 부장인 스에마쓰 구마히코였다.²⁹⁾ 스에마쓰는 1908년 5월부터 1933년까지 오랜 기간 재직하였다. 궁내부는 본래 대한제국기에 설치된 황실사무국으로 황실뿐 아니라 여러 사업을 관장하는 거대한 기관이었으나 통감정치를 받으면서 직제가 줄어들어 왕궁의 살림과 능원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부서로 격하되었다. 1910년에 일본에 병합되면서 황실이 왕실로 격하되자 궁내부는 이왕직(李王職)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³⁰⁾

1911년 2월 1일 공포되어 시행된 이왕직 사무분장 규정에 따르면 이왕직 직제 가운데 박물관을 담당한 것은 장원계(掌苑係)였다. 1911년의 박물관 업무 담당자는 직급이 사무관(事務官)인 주임(主任) 1명과, 속(屬) 3명, 기수(技手) 2명, 고(雇) 1명으로 모두 7명이었다(표 1).

<표 1> 이왕가 박물관 담당 직원 표

직 책	직 급	성 명
사무관 주임	7등 1급	末松熊彦
屬	1등 1급	劉漢用
	2등 2급	伊集院茂
	3등 2급	野野部茂
技手	2등 1급	下郡山誠一
		杉原忠吉
雇	월 20(원)	李鵬增

(자료 : 『李王職 職員錄』 1911년)

29) 『職員錄』, 內閣 記録府, 융희 3년(1909) 6월.

30) 『순종실록』 부록, 융희 4년(1910) 12월 30일 황실령 제34호 및 제39호. 이왕직은 궁내 대신의 관리에 속하며 왕족과 공주의 집안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었다.

속은 서무 관리직으로 보이며, 기수는 건축, 토목 및 원예 등 기술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며, 고는 일종의 일용직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인물은 주임으로, 박물관에 관한 사무를 주관해서 운영하므로 거의 박물관장과 같은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 스에마쓰는 앞서 확인했듯이 1908년 5월 29일 박물관 서무 및 회계 일을 맡아 박물관 사무를 시작하였으나 주임으로 25년간 근무했다. 그러나 1914년의 고려 요지 조사와 그에 관련된 두 편의 글 이외에 달리 학술적인 활동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왕가 박물관이 학술적인 기관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것은 애초부터 그러한 기능을 상정하지 않았기에 비전문가가 책임을 맡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왕가 박물관은 소장품을 일본에 보내 전시하기도 했다. 1911년 교토박람회(高麗燒) 18점, 고려시대의 “완륜경(腕輪鏡) 장식품” 등 19점 및 당대에 제작된 “낭분문대(囊盆文臺)” 3점을 출품했으며 일본미술협회 개관전에는 산수·화조·풍속·초상 등 그림 20점을 출품했고 박물관 소장품인 금성석(金星石) 1개를 동경제국대학에 기증하기도 했다.³¹⁾ 1914년에도 도쿄의 제실박물관과 교토의 대정박람회(大正博覽會)에 소장품을 출품 진열하였다.³²⁾ 그러나 이러한 전시 활동은 일본의 박물관과 동등한 지위를 지닌 조선의 박물관으로서의 전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0년에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면서 왕실은 일본 황실의 아래격인 왕가의 하나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왕가는 조선총독부 산하가 아니라 일본 궁내성 관할이 되었다.³³⁾ 이왕가의 사무를 관장하는 이왕직은 그 대표인 장관직을 대개 조선인이 맡았었지만 총독부의 다른 관서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권한은 일본인 차관이 장악하고 있었다. 형식상 이왕직은 일본 궁내성의 통제하에 있었으나 이왕직 장관 등 이왕직 직원의 임명과 징계에 관한 건이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이왕직은 실질적으로는 총독부의 통제를 받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³⁴⁾ 따라서 이왕직 관할하에 있는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은 주로 이왕직 차관이 다스리며 총독부와 긴밀한 협의하에서 관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10년의 이왕직 차관은 1907년 9월부터 궁내부 차관이었던 고미야 사보마쓰였으며 1917년에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로 이어졌다.³⁵⁾ 특히 이왕가 박물관 설립을 추진한 고미야는 1915년에 당시 조선총독부 월보인 『조선회보(朝鮮彙報)』에 「조선예술쇠망의 원인 및 그

31) 『순종실록』 부록, 순종 5년(1911) 3월 7일 및 3월 16일, 3월 24일.

32) 『순종실록』 부록, 순종 8년(1914) 7월 18일.

33) 『순종실록』 부록, 융희 4년(1910) 8월 29일 일본천황 조서.

34) 조선총독부 관리들의 지위에 관해서는 박은경, 『일제하 조선인 관료 연구』(학민사, 1999) 참조.

35) 『순종실록』 부록, 순종 11년(1917) 1월 18일자 및 『京城府史』 제2권 p. 127.

장래(朝鮮藝術衰亡の原因及其將來)」를 쓰기도 했다. 이 글은 조선이 과거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는 번성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 유교의 폐해로 인해 쇠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일본인들의 조선관을 예술에 적용하여 쓴 '조선예술 쇠망론'이다. 이는 조선의 문화적 성격을 규정지은 교과서적인 책인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의 『조선미술사(朝鮮美術史)』(1932)에서 구체화된 조선 문화 정체성론(停滯性論)과 같은 맥락에 있으며 그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조선예술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박물관 설립의 중심이었다면 그 수집과 전시의 중심이 조선의 주체성을 살리는 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박물관을 관장하던 장원계는 1915년에 명칭이 장원과(掌苑課)로 바뀌었는데 사무 분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후 1920년 사무분장 개정 때에는 장원과가 없어지고, 박물관, 동물원, 정원, 식물원에 관한 사항에 도서에 관한 사항이 더해져서 이 모두가 서무과(庶務課)의 한 사무로 통합되었다. 다시 말하면 창경원 업무를 담당하는 고유부서가 없어질 만큼 중요하지 않게 취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³⁶⁾ 그런 만큼 이왕가 박물관의 지위는 불안정한 것이었다. 1926년 7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이왕가 박물관과 총독부 박물관 합병설이 기사화되었다.³⁷⁾ 이 합병설은 닷새 만에 없었던 것으로 한다고 다시 보도되었지만 이러한 기사가 가능할 만큼 이왕가 박물관은 독자적인 지위를 누리지 못했다.

'이왕가 박물관'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왕가 박물관은 설립 초기에는 변변한 명칭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설립 당시에 이왕가 박물관 설립을 보도한 『대한민보(大韓民報)』나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新報)』 등에서는 단순히 '박물관'이라고만 지칭하고 있다.³⁸⁾

일본 박물관의 경우 소속 관서가 변경될 때마다 문부성 박물관(文部省 博物館), 내무성 박물관(內務省 博物館) 등으로 바뀌 불렀고 1889년에 일본 제국의 역사와 문화를 뒷받침하는 기관으로서 정체성을 내세우려고 '제국박물관(帝國博物館)'으로 개칭했다가, 이어 1900년에는 그 중심을 천황가로 옮겨 박물관의 명칭도 '제실박물관(皇室博物館)'으로 바꾸었다.³⁹⁾ 만약 대한제국의 황실이 박물관을 주체적으로 세웠다면 일본의 경우처럼 '제실박물관'이라거나 또는

36) 『李王職職員錄』(李王職, 1911~1918) 및 『순종실록』 부록, 순종 5년(1911) 2월 1일; 9년(1915) 3월 24일; 10년(1916) 6월 10일; 14년(1920) 10월 30일조를 토대로 정리.

37) 『동아일보』 1926년 7월 2일자.

38) 『대한민보』에서는 동식물원이 개관 준비를 할 때부터 몽둥그려 보도하고 있으며, 1910년 3월 15일자 박물관 개원식을 알리는 기사에서처럼 "창덕궁 어원 내의 박물관"이라는 식으로 언급할 뿐 박물관 고유 명칭은 지칭하지 않았다.

39) 『東京國立博物館百年史』(東京國立博物館, 1973), p. 254 및 pp. 308~310. 이 '皇室博物館' 명칭은 1923년의 관동대지진으로 박물관 건물이 크게 무너지고 나서 새 건물을 세웠을 때에도 이어지다가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하고 제국주의 일본이 패망한 뒤인 1947년에 '국립박물관'으로 바뀔 때까지 지속되었다.

‘황실박물관’을 표방했을 것이다. 당시 『대한매일신보』의 기사에 단 한 번 ‘제실박물관’이라는 지칭이 보이지만 이것도 정식 명칭이라기보다는 당시 체제가 명목상으로나마 황실 체제였기 때문에 일종의 보통명사로 붙였던 것으로 여겨진다.⁴⁰⁾ 일제 시기 신문이나 잡지에서는 흔히 이 박물관을 편의에 따라 ‘창경원 박물관’이나 ‘창덕궁 박물관’ 등으로 지칭했다.⁴¹⁾

그렇다면 ‘이왕가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굳어진 것은 어디서부터였으며 그것은 무슨 의미였을까. ‘이왕가’라는 것은 일본에 병합되기 전에는 성립할 수 없는 명칭이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엄연히 국호(國號)가 대한제국(大韓帝國)이었으며 지배자는 황제였기 때문에 ‘이왕(李王)’이란 전혀 해당되지 않는 명칭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을 합병한 일본이 일본 황실 안에 조선의 왕계를 편입하여 일본 황실보다는 격이 낮은 여러 왕가의 하나로서 붙인 명칭이었다.⁴²⁾ 따라서 이 명칭은 일본 통치자의 입장에서 붙였던 이름이었다. 이 명칭은 1912년에 발간된 『이왕가박물관소장품사진첩』에서부터 공식화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왕가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공식화함으로써 조선의 왕실 박물관이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조선이 일본 제국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게 한 것이다. ‘이왕가 박물관’이라는 명칭은 일본에 복속된 식민지 박물관으로서의 그림자가 이처럼 짙게 드리워 있는 것이었다.

IV. ‘근대적’ 박물관이라는 의미와 주체의 문제

설립 주체가 왕실도 아니고, 궁내부 관리가 주축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왕가 박물관은 동·식물원과 함께 정말 순종의 ‘무료함을 달래는 오락’을 위해 설립된 것이었을까? 이에 대한 답은 1912년의 『이왕가박물관소장품사진첩』에 실린 사진이 어느 정도 해명해 준다.

비단으로 곁장을 쓴 호화장정본인 이 사진첩은 우리나라 박물관 최초의 도록으로서 상하 2권으로 무려 677점의 소장품 도판을 실고 있다. 앞부분에 순종의 휘호와 고미야의 서문이 있다. 이어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글을 실고 있으며 불상, 금공, 석공, 목조, 칠기, 자수 및 직물, 도기, 와(瓦), 유리, 회화 등 분류에 따라 도판을 실고 각 항목의 앞에 항목별 개설을 게재하였다.⁴³⁾ 1918년부터 1943년까지 총 17권이 발행된 『조선총독부박물관진열품도감(朝鮮

40)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9일. “宮內府에서 本年度부터 繼續事業으로 帝室博物館과 動物園과 植物園 등을 設置할 計劃으로 目下에 調査中이라더라”.

41) 1932년에 일본박물관협회가 펴낸 박물관 안내책자 『全國博物館案内』에서는 이를 ‘창경원 박물관’으로 소개하였다. pp. 262~264.

42) 『순종실록』 부록. 융희4년(1910) 8월 29일 일본천황 조서 “전 한국황제를 책봉하여 왕으로 하고 창덕궁 이왕이라 칭하니”.

43) 특히 고미야의 서문에는 화가의 전기 및 화론에 관해 아유가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의 도움을 받았음이

總督府博物館陳列品圖鑑』이 각 권마다 12건 안팎의 적은 자료들을 담고, 체계적인 구성도 갖추고 있지 않음에 견주면 이 도록은 지나치게 잘 꾸며진 것이다.

표지를 열면 순종의 친필 휘호가 수록되어 있고 이어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의 전경이 실린 사진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진들은 두 장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식물원과 과거의 식물원 자리, 현재의 동물원과 공사중인 동물원 자리, 풀이 무성한 예전의 명전전 앞 조정(朝廷)과 박석(薄石)을 들어내고 잔디와 나무로 단장한 당시의 명전전 일곽의 사진을 의도적으로 병치하여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게 한 것이다(圖 4~9). 이 사진들은 왕궁으로서 퇴락했던 모습이 일제의 보호를 받은 이래 수리를 거쳐 이처럼 발달한 문명의 모습을 띄게 되었음을 역설하고 있다.⁴⁴⁾ 특히 식물원은 당시에 규모나 설비에서 “동양 제일”임이 강조되어 주장되었다.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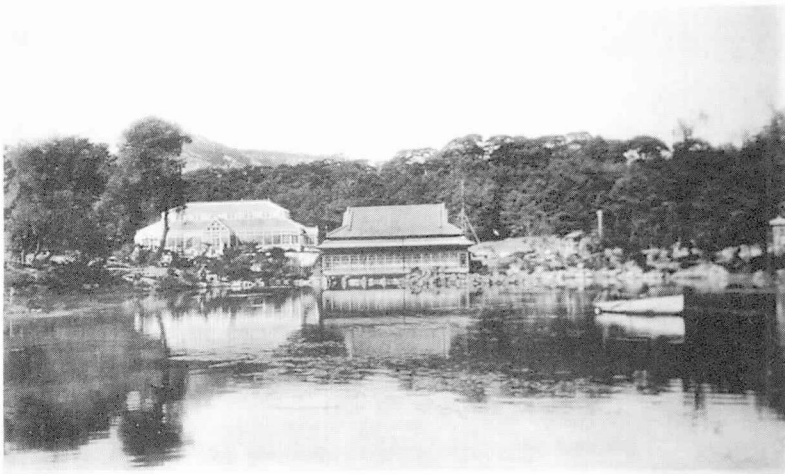


圖 4. 식물원 전경

밝혀져 있다. 鮎貝房之進은 이왕가 박물관은 물론 조선총독부 박물관에도 깊이 관여한 사람이다. 그는 『이왕가박물관소장품사진첩』의 글뿐 아니라 『每日申報』에 1918년 5월 14일부터 「朝鮮의 書畫」를 9회에 걸쳐 연재하였고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일간지 『朝鮮』에 「沙器所の窯跡」(1929)을 발표하였다. 그는 당시 소문난 고려청자 수집가로서 수집한 도자를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이구열, 『한국 문화재 수난사』, p. 63 및 藤田亮策, 「鮎貝房之進氏の蒐集品に就て」, 『朝鮮總督府博物館報』 제4호(1933).

44) 창경궁은 1484년 설립된 이래 창덕궁에 부족한 생활 기거 공간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임진왜란 때에 병화로 소실되었다가 1615년 무렵 창덕궁과 함께 중건되어 조선후기 동안 쓰였다. 그러나 고종이 1896년 아관파천에 이어 1897년 경운궁(덕수궁)으로 환궁한 이후 황제가 임어하는 궁궐로 쓰이지 않았다. 『朝鮮古蹟圖譜』에서 가져온 이 퇴락한 창경궁 사진은 1902년부터 조선의 고적을 조사한 關野貞가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것을 조선 왕실의 퇴락으로 병치하는 것에는 전후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 어쩌면 너무도 교묘히 고려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궁궐의 변천에 관해서는 홍순민, 『우리궁궐 이야기』(청년사, 1999) 참조.

45) 藤田亮策, 「朝鮮古蹟調査」, 『朝鮮學論考』(1963), p. 74.



圖 5. 식물원 자리의 옛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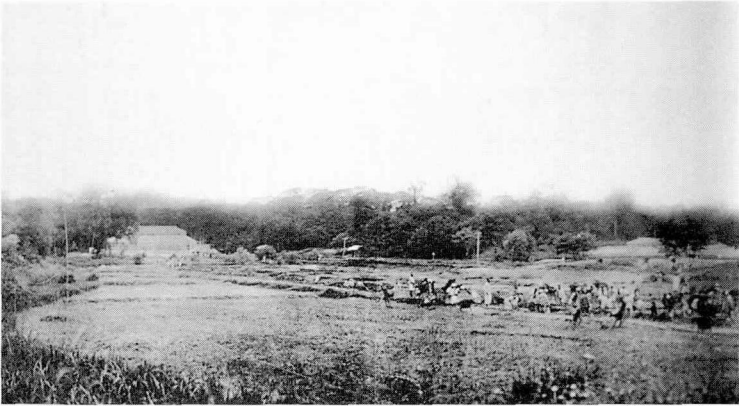


圖 6. 동물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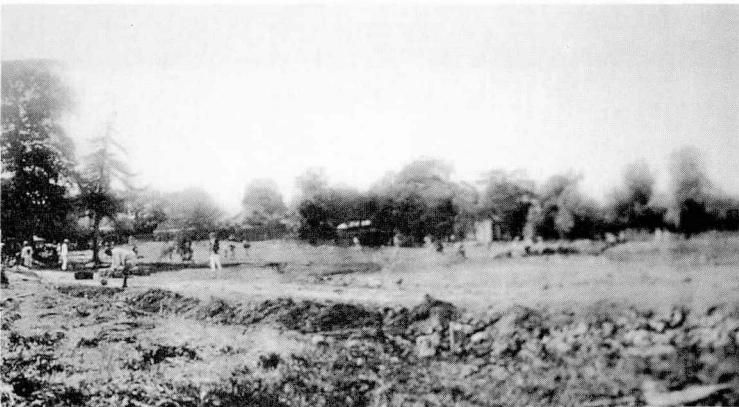


圖 7. 공사중인 동물원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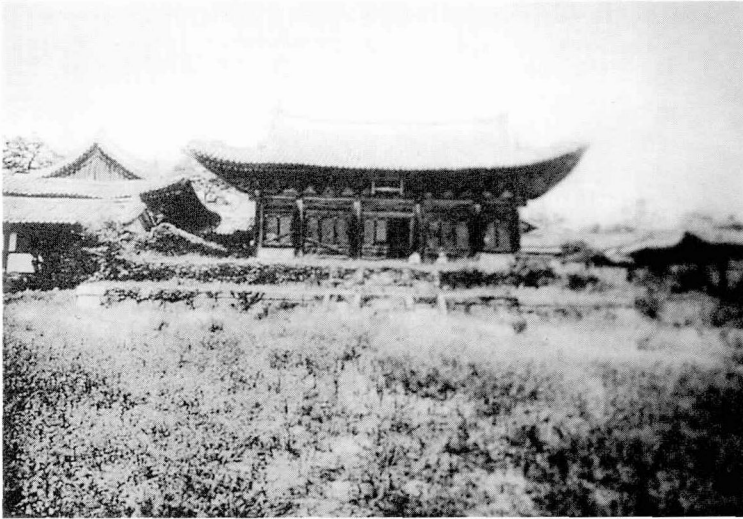


圖 8. 풀이 우거진 명정전과 조정 모습



圖 9. 단장한 명정전 일곽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의 설립은 일본의 경우 근대화의 한 표상으로 받아들여졌다. 막부(幕府)의 원당사찰(願堂寺刹)이 있던 우에노(上野)에 내국권업박람회(內國勸業博覽會)를 열면서 그곳에 동·식물원과 함께 박물관을 연 것이 일본 박물관 형성의 시초였다. 그들은 식산흥업(殖産興業)을 위한 박람회를 열면서 왕실, 고사사(古社寺)에 보존되어 오던 전통 미술품을, 수출을 위한 공예품의 참고품으로 한 자리에 모아 전시하였다. 이러한 전시 과정에서 그 전까지는 통일적인 국가 개념이 없던 일본 상(像)을 고대로부터 천황을 정점으로 이어져온 하나

의 나라인 일본이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하는 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⁴⁶⁾

1876년 설립 이래 여러 과정을 거쳐 1909년 당시 일본의 제실박물관은 미술 역사 박물관으로서 자리잡고 있었다. 진열은 크게 역사부, 미술부, 미술공예부, 천산부(天産部)로 구분되었으나 회화, 공예품과 역사자료를 중점적으로 전시하는 체제였다. 역사부는 전적(典籍), 제사종교 유물, 무기, 복식, 악기, 화폐 등에 특별히 나라(奈良)시대 유물 항목까지 12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 체제가 역사적인 순서를 채택한 것이라기보다는 물품에 따른 분류였던 경향이 강하기는 하지만, 역사부는 그 나름대로 일본 역사와 풍속, 문화를 보여주는 구성이었다. 또 미술부에는 신고회화(新古繪畫), 각종 조각상, 건축 장식구(裝飾具) 등이 포함되어 옛 것과 새 것의 연결성도 보여주었다.⁴⁷⁾

이러한 일본의 예와 우리 나라의 예를 단순히 비교한다면 우리 나라도 같은 과정을 밟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왕가 박물관의 전시 체제는 그다지 체계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왕가 박물관의 전시방식을 보면 유물의 중요도와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르는 기준이 분명하고 단순하다. 시중에서 가장 값비싸게 산 고려시대와 신라시대의 도자기나 금속공예, 불상 등이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조선시대의 것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다. 이것은 조선이 점차 쇠락하여 마침내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던 그들의 조선에 대한 역사인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시 방식도 역사적인 순차를 따르기보다는, 일본인들의 수집 취향에 따라 중요도를 매겼던 것으로 생각된다. 말하자면 소장품의 수집이나 전시의 측면에서 일본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불상이나 도자기를 중심으로 한 골동완상(骨董玩賞)의 호고취미(好古趣味)적인 경향이 강했던 것이다.⁴⁸⁾ 따라서 이왕가 박물관의 전시에서 '조선'의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해주는 근대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박물관은 그 형성과정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주체'가 빠져 있다. 근대국가로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하려면 유물을 선별하고 그것을 시각화할 수 있는 '주체'의 존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고미야를 앞세운 통감부는 왕궁에

46) 佐藤道信 『〈日本美術〉誕生』(講談社, 1996), p. 181.

47) 『동경국립박물관백년사』, pp. 318~320.

48) 특히 후지타 료사쿠는 이를 두고 "고려도자를 중심으로 고려의 금공품, 칠기, 불구(佛具)에 이르기까지 미술적으로 가치있는 것들이 선택적으로 수집된 것이었다고 하였다. 藤田亮策, 「朝鮮 古文化財の保存」, p. 258.

동·식물원과 박물관을 설치하고 그 과정에서 조선 후기에 쓰이지 않던 창경궁을 보수하여 면목을 일신함으로써 일본의 '보호'를 받은 조선의 모습이 근대화되었음을 과시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방과 그 이후의 추이를 보면 순종의 무료함을 달랜다거나 하는 설립목적은 정말 명목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개관 당시 『대한민보』는 순종이 일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이 관람하는 목요일을 제외하고 다른 날은 공중 관람을 허용했다고 보도하고 있다.⁴⁹⁾ 그러나 순종이 그러한 '시혜'를 내리기 전에 이미 창경궁과 나아가서는 순종이 기거하는 창덕궁 후원에 이르기까지 궁궐은 비공식적으로 개방되어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었다. 순종이 공식적으로 개방을 명하기도 전인 1909년 7월 2일에 이미 궁내 관인의 부인에게 입장표를 허용하였으며 10월 20일에는 동물원을 관람한 사람이 '啞俗生'이라는 필명으로 『대한매일신보』에 관람기를 기고하였다.⁵⁰⁾ 1911년 3월에는 조선산업시찰단 240명이 박물관, 동·식물원을 관람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인정전(仁政殿)을 비롯한 창덕궁(昌德宮) 일원을 관람한 뒤 비원(秘苑)으로 여겨진 창덕궁 후원의 주합루(宙合樓)에서 다과를 대접받는 등, 이 무렵에는 일본에서 조선으로 오는 관광시찰단이 조직되어 그에 관한 기사가 빈번히 소개되고 있다.⁵¹⁾ 일단 공개 관람이 시작되자, 이왕직 사무국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람을 유치하였는데, 특히 시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람을 적극 선전하였다.⁵²⁾

이처럼 설립될 무렵 관람 행태와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왕가 박물관은 조선을 '근대화'한 일본의 업적을 과시하려는 일종의 관광 코스의 하나로 개발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조선왕조의 중심이었던 궁궐의 유원지화함으로써 궁궐이 지니는 정치적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더구나 일제는 1911년 4월에는 박물관과 동·식물원을 포함한 창경궁 일원을 창경원(昌慶苑)으로 통칭하면서 궁궐로서의 면모에서 원유(園囿), 오락 공간으로 그 정체성(正體性)을 확실히 바꾸었다.⁵³⁾

박물관을 포함하여 창경원은 1926년까지는 매주 목요일에 순종의 산책 겸 관람을 위한다

49) 『대한민보』 1909년 11월 3일자.

50) 『대한민보』 1909년 7월 2일 및 『대한매일신보』 1909년 10월 20일자.

51) 『순종실록』 부록, 순종5년(1911) 3월 16일. 『대한민보』 1909년 9월 5일자에는 일본 하야신문사 주최로 조선과 만주를 관광하는 한만 관광단 일행 34명이 요코하마를 출발하였다는 보도를 하고 있으며, 이어 9월 16일에는 미국 관광단이 도착했다. 또 창경궁/창덕궁은 학생들이 단체 수학여행으로 들리는 코스이기도 했던 듯, 11월 12일에는 일본 실업학생 27명이 창덕궁 내 동물원을 관람했음을 보도했다.

52) 『대한민보』 1909년 11월 4일자. 궁내부 어원 사무국 이사 兪致衡은 그 전날 관립고등학교장에게 통첩하고 경성 내 각 관공사립학교 학도들을 통일영술하고 관람할 뜻을 秘苑長에게 승낙을 구하였으니, 관람의 사만 있다면 관람 날짜만 사전에 통지하면 되었다.

53) 『순종실록』 부록, 순종 5년(1911) 4월 26일.

는 명분으로 휴관하였다. 그러나 창경원은 이미 벚나무를 수백 그루 심어 해마다 봄이면 벚꽃놀이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었고 1924년부터는 야간개장까지 해오던 터였다. 1926년 4월에 순종이 서거하자 이듬해인 1927년 7월 1일부터는 창경원 전체를 연말연시 6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개방했다. 창경원은 당시 경성시민의 유일한 “위락지”가 되었다.⁵⁴⁾

특히 그 가운데서도 이왕가 박물관은 창경원의 중심공간으로 여겨지지도 않았던 듯하다. 창경원을 관람하는 사람들의 관람행태는 동물원을 관람하면서 식물원이나 박물관을 곁들여 보는 방식이었다. 그것은 1921년의 동아일보 기사 내용에서 드러나는데, 그때까지의 관람 통계로 박물관 두 곳(이왕가 박물관과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구경꾼이 일 년 평균 39,180명이며, 한 곳뿐인 식물원의 구경꾼도 일 년 평균 19,180명인 데 비해, 동물원의 일년 평균 구경꾼 수요는 239,750명으로 동물원 관람객이 박물관 관람객의 8배 이상인 것에서 확인된다.⁵⁵⁾

V. 이왕가 박물관에서 ‘이왕가 미술관’으로 - 역사의 단절과 식민지적 성격

이왕가 박물관은 1938년에 덕수궁(德壽宮)으로 이전하였다. 이는 단순한 소장품의 이전이 아니라 이왕가 박물관 위상의 일대 전환이었다. 이왕가 박물관 소장품은 석조전(石造殿)의 서쪽에 새로 지은 신관에 전시되었다(圖 10).



圖 10. 덕수궁 이왕가 미술관 전경

54) 藤田亮策, 『朝鮮古蹟調査』 p. 74.

55) 『동아일보』 1921년 5월 21일자.

신관 개장과 때맞추어 발간된 『이왕가미술관요람』에 따르면 기존 이왕가 박물관은 “진열관이 분산되어 있어 관람이 불편하고 박물관 건물도 협소하고 채광과 진열품 보존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현대에 어울리는 새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어서” 이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덕수궁의 석조전에 “일본 근대 미술품을 진열해 놓았기 때문에 조선 고미술품을 관람할 수 있는 신관을 건축해서 신구 미술품을 한 장소에 진열하고 관람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채택되었다”고 천명되었다.⁵⁶⁾

덕수궁의 석조전에는 이미 1933년부터 일본 근대 미술품이 전시되고 있었다. 1919년 고종이 승하한 뒤 덕수궁은 여러 전각들이 훼손되고 변형된 상태로 1933년에 공원으로 개방되었다. 이때 덕수궁에서 가장 큰 양식(洋式) 건물인 석조전을 개조하여 이왕가 미술관으로 삼았는데 여기에 전시된 것은 일본 근대 미술품이었다.⁵⁷⁾ 조선 측에서는 이왕가 미술관에 처음부터 일본 근대 미술품을 전시할 생각은 아니었다. 1933년 당시 이왕가 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신문에서는 “찬란한 고대 미술품을 진열하는 것으로 보도하였다.⁵⁸⁾ 기존 이왕가 박물관의 시설의 미비와 협소함 때문에 조선인들은 그것을 덕수궁으로 옮겨 전시할 것을 희망했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0월에 막상 이왕가 미술관이 문을 열었을 때에는 일본의 문부성, 제실박물관, 동경미술학교, 궁내성과 화가 개인 등 일본 각지에서 벌려온 일본 근대미술 대가들의 작품이 진열되었다. 이왕가 미술관의 일본 근대미술품 전시는 조선에 사는 조선인과 일본인에게 “인심의 융화를 도모하고 고상하고 유아한 경지로 이끌며 문화의 계발향상에 투자하게 하려는” 명분으로 이루어졌다(圖 11).⁵⁹⁾ 덕수궁에 이왕가 미술관이 설립되어 일본 근대미술품이 전시되는 과정은 당시 동경미술학교장이었던 마사키(正木直言) 등 일본 미술 관련 핵심인사들이 주도하여 조선인들에게는 거의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조선인들은 말 그대로 ‘구경꾼’에 불과했다.

이왕가 미술관 신관은 1933년의 바램이 물거품이 된 뒤에 1936년부터 박물관 이전 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마침내 1938년에 새 건물을 지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때 이왕가 박물관은 덕수궁에 있는 기존의 ‘이왕가 미술관’에 통합되었다. 석조전에는 일본 근대 미술품이, 신관인 서관에는 조선 고미술품이 전시되었다. 이는 ‘신구 미술품’이 한 자리에 진열되고 관람되

56) 『이왕가미술관요람』, pp. 4~5.

57) 1933년에 설립된 이왕가 미술관의 설립 경위와 의미에 관해서는 李美那의 글에 자세히 실려 있다. 이미나는 일본 미술품 전시가 의도된 식민지 문화정책의 일환임을 지적하였다. 李美那, 「李王職德壽宮日本美術品展示—植民地朝鮮における美術の役割」, 『東アジア繪畫の近代』(静岡縣立美術館, 1999) 참조.

58) 『조선일보』는 1933년 5월 9일자에 사장된 옛그림 2,000여점이 공개된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9월 7일자에도 “왕궁가 비장의 일품이 진열된다”고 보도했다.

59) 『이왕가미술관요람』 p. 4.

는 것이어서 기존 이왕가 박물관과는 달리 과거 역사가 현재로 이어지지 않는 단절을 극복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미술품'은 조선의 것이며 '신미술품'은 일본의 것이었다. 따라서 역사적 연계라는 의미에서 살펴보면 조선의 현재라는 것은 바로 '일본의 식민지'임을 웅변해 주는 전시 체제였던 것이다.



圖 11. 덕수궁 석조전에 전시된 일본 근대미술품

맺 음 말

이왕가 미술관/박물관은 1945년 해방 뒤에 덕수궁 미술관으로 유지되다가 1969년에 국립 박물관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이왕가 박물관의 형성과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박물관의 뿌리를 확인해 보는 일이 된다.

이왕가 박물관의 설립경위와 소장품 구성, 전시와 운영에서는 주체적 시각과 체제를 살펴 볼 수 없었다. 이왕가 박물관의 설립은 오히려 '왕가'를 앞세운 일제 통감부/총독부의 일종의 문화정책의 전개였으며 따라서 이왕가 박물관은 실질적으로는 식민지 박물관의 성격을 고스란히 내보이고 있었다. 흔히 일제의 문화통치를 1919년의 삼일운동 이후라고 하지만, 이러한 이왕가 박물관 설립의 성격으로 보나 세키노가 중심이 된 고적조사사업이 이미 1902년부터 시작되었음을 염두에 둔다면, 이미 병합 전부터 문화를 통한 통치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⁶⁰⁾ 또한 이왕가 박물관과 동·식물원이 창경궁에 세워짐으로써 창경궁은 왕이

임어하는 궁궐로서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장소로보다는 한갓 위락시설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왕가 박물관은 식민통치 체제 안에서 근대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는 한 측면도 된다. 식민지 근대화의 모습은 경제 체제에서와 달리 문화 체제에서 그 작동방식이 훨씬 교묘하고 미묘하다. 더구나 유물을 앞세운 근대적 방식의 전시는, 물질적 객관성이 역사적 사실성을 입증하는 듯이 여겨지기 때문이다. 일제가 이왕가 박물관과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세워 구현하려 했던 진정한 의도는 유물의 전시를 통해 조선의 역사를 일제의 방식대로 과거화시키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인 이왕가 박물관은 박물관의 성격과 전시의 의미가 전시의 주제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해 준다.

60) 전경수는 「한국 박물관의 식민주의적 경험과 민족주의적 실천 및 세계주의적 전망」, 『韓國 人類學의 成果와 展望』(松峴李光奎教授停年紀念論叢委員會, 1998)에서 일제의 문화통치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삼일운동 이후인 1920년대가 아니라 문화를 통한 통치의 작동방식이 구사되는 1910년대, 아니 조선고적 조사사업이 시작된 190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ABSTRACT]

The Colonial Construct of the Yi Royal-Family Museum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Mok Soo-hyun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factors behind the foundation of the Yi Royal-Family Museum and its identi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Yi Royal Museum 李王職博物館 was originally founded in 1909 as the first museum in Korea. Although its title seems to denote that it was a royal institution of the Chosŏn Dynasty, its establishment was, in fact, a part of the Japanese colonial scheme to degrade a royal palace to a mere amusement park.

The collection of the Yi Royal Museum consisted primarily of artifacts that had been secretly excavated by illegal diggers and being covertly circulated in the contemporaneous art-market. Thus the museum could not function as a royal-treasure museum in a real sense; nor could it play a pivotal role for the development of museum collections in Korea. It was set up purely for the display of old objects rather than functioning with culturally informative intentions. This was mainly due to incompetence and ignorance on the part of the management of the museum. Its deputy director, Komiya Sabomatsu 小宮三保松, once stated unsympathetically in an article that Korean art could only follow the course of decline. Its curator, Suematsu Kumahiko 末松熊彦, a former tax official, was obviously not qualified for handling such a collection with scholarly understanding. Thus, the museum was not able to adequately represent Korean culture.

The royal collection was officially named Yi Royal-Family Museum (Yi-wangga pangmulgwan 李王家博物館) in 1912. After the forceful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in 1910, the Korean imperial family was demoted as being of a lesser rank than the Japanese imperial family, and the new official name for the collection was constructed to signify this demotion.

In the frontispiece of the museum catalogue, *Yiwangga pangmulgwan sojangp'um*

sajinch'ŏp 李王家博物館所藏品寫真帖』, there were photographs aimed to demonstrate the “improvement” Japanese colonialism had brought to Korea. Images of palace ruins were shown in contrast to a modern botanical garden, a zoo and a museum built by the Japanese. The Ch'anggyŏng palace was thus relegated to a mere amusement park.

In 1938, the Yi Royal-Family Museum was moved to a different site, Tŏksu palace, and merged with the Yi Royal-Family Art Museum (Yi-wangga misulgwan 李王家美術館), which had been founded in 1933 to display contemporary Japanese art. Thus, Korean art was cast in the light of the declining past, whereas Japanese art was now to be projected as the future of art creation in Korea.